

중국의 다민족통일국가론과 주변국가의 역사 중국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과 아시아의 평화

서길수(서경대/한국)

<目次>

- I. 80년대 새로운 다민족통일국가론의 등장
- II.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 III. 다민족통일국가와 주변 국가의 역사
- IV. 맺는말 -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I. 80년대 새로운 다민족통일국가론의 등장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과 동시에 다민족통일국가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화민족 만들기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통일적다민족국가에 대한 논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시작되었다. 50년대 학계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었다.

첫째, 백수이(白壽彝) 같은 학자들이 내놓은 것으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를 바탕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이래 이 토지에서 살던 선민(先民)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며, “황조(皇朝)의 강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상의 국토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고 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작업이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편향으로 빠지기 대단히 쉽다”는 점과 “우리들 국사 조대(朝代) 하나하나를 고립된 땅으로 보도록 인도할 수 있고, 역사와 우리 현재의 사회생활의 결합할 수가 없다”¹⁾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1) 白壽彝 「論歷史上國國土問題的處理」, 『光明日報』, 1961.5.5.

둘째 손조민(孫祚民)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중국 고대사의 조국 강역과 소수민족의 문제는 역사적 태도와 변증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토 범위 안에 사는 각 민족(과거 역사상의 민족 포함)은 모두 중국 민족 대가정의 구성원이며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다. 다른 한편, 과거의 역사 단계는 반드시 각 족(族) 왕조의 강역이 역대 국토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각 해당 왕조 강역 밖에 있는 독립된 민족국가는 당시 중국의 범위 안에 포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독립된 민족국가가 어떤 원인 때문에 점차 한족에 융합되거나 한족 왕조에 통일된 이후는 중국의 민족 성원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도 조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된다.”²⁾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쟁은 건국 초기에는 백수이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 범위를 정하는 원칙으로 수 십 년간 유일한 표준이었다.

80년대 들어서 이 문제는 두 번째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논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선 양건신(楊建新)이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내 놓았다.³⁾ 그는 “중국 역사상 진, 양한, 수당, 원, 명, 청 시대는 모두 기본적으로 전국통일의 시대를 실현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 발전의 근간으로 이 시기의 강역도 역사상 중국의 강역 범위를 확정하는 주요 표준이 된다. 언뜻 보면 손조민의 논리와 같아 보이지만 아주 새로운 관점이 엿보인다. 즉 한족의 왕조가 아닌 원나라나 청나라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1981년 열린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 문제에 대한 집결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여기서 담기양(譚其驤)은 “새로운 중국의 역사학자는 양수경(楊守敬)처럼 중원왕조의 판도만 가지고 역사상 중국의 범위를 정하는 논리를 다시 흉내 낼 수는 없다. ... 역사상 중국의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청조(淸朝)가 통일을 완성한 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입하기 이전의 청조(淸朝) 판도, 구체적으로 말해 18세기 50년대부터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 판도를 가지고 우리 역사시기 중국의 범위를 잡는다. 소위 역사시기의 중국이란 이 범위를 말한다. 몇 백 년이라고 해도 좋고 몇 천 년이라고 해도 좋다. 이 범위 안에서 활동한 민족은 중국 역사상의 전권이라고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⁴⁾

2) 孫祚民 「中國古代史中有關國疆域和少數民族的問題」,『文匯報』, 1961.11.4.

3) 楊建新 「沙俄最早侵占的中國領土和歷史上中國的疆域問題」,『中俄關係史論文集』, 甘肅人民出版社, 1979.

4) 譚其驤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中國邊疆史地研究』, 1990-1: 瀋陽東亞研究中心, 『歷史上政

담기양은 오늘날 강역을 표준으로 하자는 백수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역사상 중원왕조의 강역으로 표준으로 하자는 손조민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관할 형식이 다른 것이 당시 중국에서 시행한 주권과 관할의 표준이라는 양건신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 역사 시기, 몇 천 년 이래 역사발전에 따라 자연 형성된 중국 전체가 역사상의 중국이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역사상 중국이 한때 역사상 중국 범위 이외의 지방에서 통제하고 있었다면, 그 지방이 역사상 중국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몇몇 중국 왕조의 판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는 중국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판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담기양의 다민족통일국가론은 80년대 이후 크게 각광을 받는다.

II.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1983년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설립

1983년 중국은 國務院 산하 中國社會科學院(CASS) 안에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라는 본격적인 국경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설립하였다. 이 기구에서 다민족통일국가론 바탕으로 한 중화민족과 국경문제를 다루며, 이론을 정립하고, 국내 모든 다른 연구기관들과 연결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임인 馬大正이 쓴 「20세기 중국 변경의 역사와 지리 연구」⁵⁾라는 글을 보면, 담기양의 논리를 간추려 설명하고 “작자의 이러한 인식은 실제 이미 사학계의 대다수가 받아들였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 변강사지연구중심 또한 그런 다민족통일국가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2. 1986년 티베트 전문 연구기관, 中國藏學研究中心 설립

⁴⁾ 權民族歸屬理論研究, 1999.

5) 馬大正 「20世紀的中國邊疆史地研究」, 『歷史研究』 1996-4.

중국장학연구중심은 1986년 5월 20일 북경에 설립하였다. 티베트의 역사·현상과 미래 발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가급 연구기관이다. 그 목표는 전국의 장학(藏學)연구를 조직하고 협조하며, 연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학술전문서적과 간행물을 출판한다.⁶⁾

변강사지연구중심은 1996년 “중국 변강의 역사와 사회 연구(中國邊疆歷史與社會研究) 운남지부(雲南工作站)”를 설립하였다.

3. 1990, 북부 국경(몽골)의 귀속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

1990년 10월 『蒙古族通史』를 출간하고, 2005년 8월 『蒙古民族通史』발행하여, 몽골족이 다민족통일국가의 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 몰골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칭기스칸은 위대한 中華民族의 선조다.’고 선언하였다.⁷⁾

4. 중국 동북지역 국경문제의 본격적 연구

동북지역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길림성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러시아 사이의 국경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동화사범대학(通化師範學院) 고구려연구소(1995)와 길림성사회과학원에 고구려연구중심(1997)이 생기고 1996년에는 고구려 문제가 중국사회과학원 중점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되었다. 1999년, 中國邊疆地區 歷史社會研究 東北工作站이 설치되고, 2001년에는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중심으로 연구한 『고대 중국 고구려역사 총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을 발행한다.

5. 夏·商·周 斷代工程(1996~2000, 9차 경제·사회5개년계획)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가장 빠른 연대인 西周 공화 원년(BC 841년)을 역사시대로 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西周 이전의 주·상·하나라의 단대(斷代)를 확정 짓는 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부, 중국 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 박물관 등에서

6) 中國藏學網(www.tibetology.ac.cn)

7) 박원길,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 연구」, 『고구려연구』(29), 2007.

조직하고, 전문가 200명이 참가(자연과학사연구소, 생물물리연구소, 천문대, 역사연구소, 고고연구소, 박물관, 고고문물연구소, 대학 등 32개 기관)하였다.

그 결과 전설의 시기였던 서주 이전의 시대들 하(夏) - BC 2070~1600년, 상(商) - 전기 BC 1600~1300년, 후기 BC 1300~1046년, 서주(西周) - BC 1046~771년으로 확정하였다.⁸⁾

6. 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⁹⁾(2000~2005, 10차 경제·사회5개년 계획)

2000년 8월 이 프로젝트들 맡은 ‘古代文明研究센터’를 설립하는 대회에 240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0·5(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중 점과학기술항목으로 고고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예술사, 언어학, 민족학, 종교학, 천문학 같은 다양한 학계가 참여한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의 기본 목표는 용산시대(BC 3000 ~ BC 2000년)의 고고문화와 문명의 발전과정, 그리고 고대의 역사전설 가운데 오제(五帝)시대의 역사문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산시대=오제시대”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프로젝트로, 염황의 역사를 지금부터 약 5000년 전후로 인식하여, “5천년 중화 문명사”란 습관적 표현을 확립시키는 것이다.¹⁰⁾

7.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 동북공정(東北工程) 실시(2002~2007)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실시한 프로젝트로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조직하였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과제는 2002년 53개(기초연구 27, 응용연구 8, 번역 14, 문서집성 4), 2003년 33개(기초 15, 번역, 문서 4), 2004년 6개(기초연구)로 모두 89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 47개 과제들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① 고조선·고구려·발해 연구 : 13과제, ② 간도 및 한중 국경문제 : 10과제, ③ 원, 명, 청, 민국 시대 연구 : 10과제, ④ 국경이론 및 민족문제 연구 : 11과제, ⑤ 러시아에 대한

8)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 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9) 중국에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라고 쓴 논문들도 있다.

10) 王先勝, “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細思量, http://www.zgzs.cn/data/2006/0401/article_25.htm

연구 주제 : 7과제였다. 모두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 및 역사에 관한 연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북공정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약화되었다.

8. 신강항목(新疆項目) (2005~현재)

2005년 5월 28~29일 국가사회과학기금 특별항목인 “신강 역사와 현상에 대한 종합 연구” 1차 전문가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북경, 신강, 남경에서 10명 남짓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신강항목 관리방법”, “신강항목 경비 관리방법”, “과제지침”을 확정하였다. 이 항목에는 왕락림(王洛林) 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 주임이 영도소조 조장을 맡고, 여성(厲聲)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이 전문가위원회 주임을 맡는 등 동북공정 팀들이 그대로 신강항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2차 中華文明探源工程과 遼河文明論, 11·5 기간(2006~2010)

11·5 기간(2006~2010)에 실시되는 중화문명탐원공정 2단계에서는 長江, 黃河, 遼河, 淮河 같은 큰 강 유역의 문명기원 연구들 탐원공정 차원에서 진행한다. 여기서 유일하게 중원에 있는 강이 아닌 요하에 대한 문명 탐원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가 나온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들 보면 요하문명과 중국의 오제(五帝) 전설의 접합하여 요하가 중화문화의 주요 구성체로 편입되는 것으로 하였다.¹¹⁾

- ① 중원의 신농씨(神農氏, 華族集團) : 양소문화(仰韶文化)가 대표 - 조(粟) 농사가 주요 활동
- ② 연산(燕山) 남북지구의 황제(皇帝)집단 : 홍산문화(紅山文化)가 대표 - 어로·수렵이 주요 활동
- ③ 동남 연해지구의 우[虞(夷)]집단 : 대문구(大汶口)·양저문화(良渚文化) - 벼농사(稻作)가 주요 활동

그리고 이 3대 문화권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하(夏)·상(商)·주(周) 3대 문화의 기초들이루었다는 것이다. 옛날 東夷로 불렸던 요하 유역이 요하문명론이 연구되면서 전설 속의 황제 자손이 되어 버린 것이다.

11) 요령성박물관 「遼河文明展」, 안내판

Ⅲ. 다민족통일국가와 주변 국가의 역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중국은 끊임없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작업을 하였다. 30년간 진행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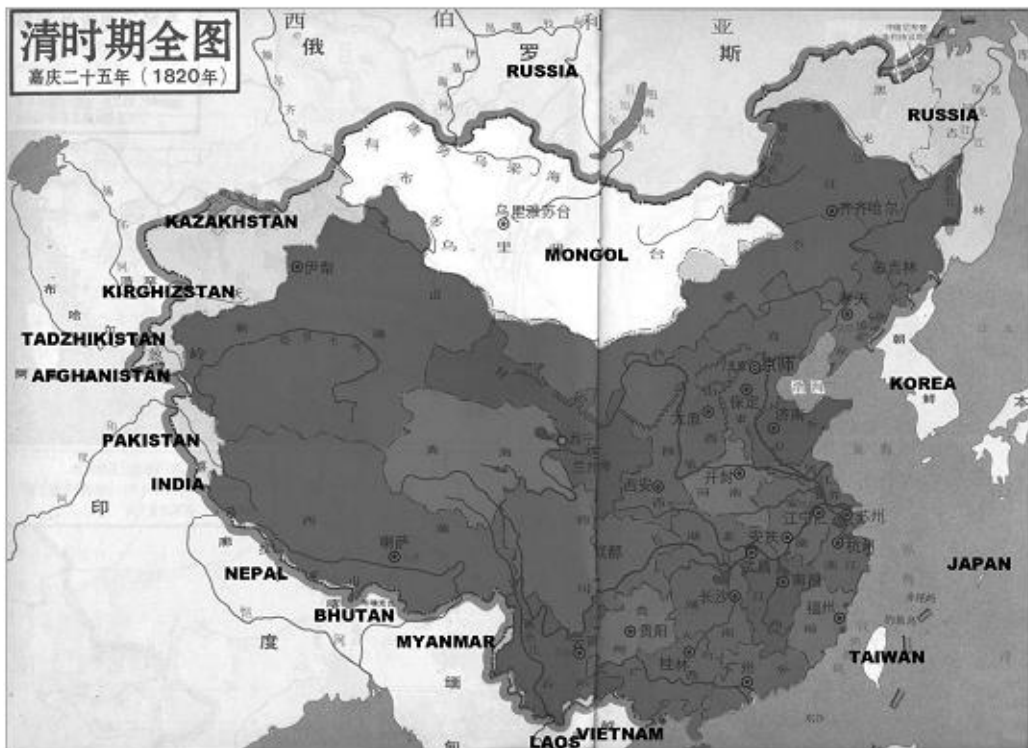
1. 모든 프로젝트가 「다민족통일국가론」으로 집중된다. 다민족통일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통일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첫째는 담기양의 다민족통일국가론에서 주장하듯이 “제국주의 침략 이전 청나라 영토”를 중심으로 국경을 삼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비롯해서, 몽골, 투바공화국, 알타이 등 아직 통일하지 못한 곳이 수없이 많다. 다른 하나는 55개 소수민족의 통일이다. 이 통일론이 바로 새로운 “중화민족”론이다.

이러한 다민족통일국가는 주변의 국가들과 필연적으로 분쟁을 낳게 된다. 우선 <그림 1> 지도를 보자.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중국역사지도책』의 청나라 시기 전도에다 현재 중국의 영토를 대비해 본 것이다. 담기양의 주장대로 청나라 때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한다면 대부분 주변의 나라들과 영토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연구중심에서 다루는 국경은 크게 다음 5가지로 나누고 있다. 육지로 연결된 국경은 4개 지역14개 국가이고, 바다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6개국으로 모두 20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 (1) 동북 국경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②러시아, ③몽골
- (2) 북부 국경 : 몽골
- (3) 서북 국경 : 몽골, 러시아, ④카자흐스탄 ⑤키르기스탄, ⑥타지키스탄, ⑦아프가니스탄, ⑧파키스탄
- (4) 서남 국경 : ⑨인도, ⑩네팔, ⑪부탄, ⑫방글라데시, ⑬라오스, ⑭월남
- (5) 바다 국경 : 월남, ①말레이시아, ②부르나이, ③ 필리핀, ④대만, ⑤일본, ⑥한국

아울러 현재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요 국경분쟁지역 역사 핫 이슈(熱點)으로 분류한 나라와 분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그림 2> 청나라 영토(주홍색 국경)과 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남색)

- (1) 고구려 문제 : 남북한과의 분쟁
- (2) 탕누 울랑하이(唐努烏梁海) : 러시아 투바공화국(30만),
- (3) 동몰길(东突) 문제 : 몽골, 알타이, 중앙아시아, 터키의 선조 문제,
- (4) 남사군도(南沙群島) 문제 : 필리핀,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분쟁,
- (5) 조어도(钓鱼島) 문제 : 일본과의 분쟁

2. 모든 프로젝트들이 두 가지 통일을 위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극복하는데 사용할 유용한 이론(tool)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에 '변경이론연구'를 집어넣고 있으며, 나아가 반반세기 동안 변강학(邊疆學)이라는 학문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한 가지 특징은 단순한 변경이론이 아니라 '중국 변경 이론' 연구라는 점인데, 여

12) <http://chinaborderland.cass.cn/>

기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나는 '중국변경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변경이론'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위주의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보편타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중화인민공화국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이다.

3.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가 제시되면 그에 대한 찬반논리가 오래 진행되고, 그 결과 그 논리가 일반화되고 합의들 이루어졌을 때 실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논리나 목표가 결정되면 연구와 실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논의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 논의 과정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나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내는 순수 학술적 입장은 배제된다. 그것이 다른 나라와 관련되었을 때는 그 강도가 훨씬 심하다. 이점이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4.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사회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하·상·주 단대공정은 9차 경제·사회5개년계획(1996~2000), 중화인민공화국 고대문명탐원공정(2001~2005년), 하는 식으로 국가의 커다란 계획과 맞물려가기 때문에 조직과 자금이 탄탄하고, 국가적 행정적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는 학문 연구가 국가의 운영과 직결되어 있어 학문의 중립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IV. 맺는 말 -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대국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역사에 진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관을 가질 때가 되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들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철학과 정치철학이 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세계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흉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중국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간 것은 침략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쟁이다"고 주장한다. 1980년 이후 나온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되는 한 중국의 모든 주변 국가와의 분쟁과 전쟁은 중국의 통일전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 평화는 없고, 아시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평화도 없다. 이것이 중국이 새롭고 정의로운 역사관을 가져야 할 절대적인 명제이다.

역사들 통해서 보면 이런 중화사상이 한족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고대 전설적인 하·은·주들 빼고, 소위 한족이 수립한 진한(秦漢) 이후 국가들이 300년 이상간 나라가 복송 한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을 지배했던 북위, 요, 금, 원, 청 같은 이민족들이 한족을 지배할 때도 중화사상을 무기로 썼던 것도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역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내 동치이념으로 삼아서 안 된다. 그보다는 역사들 재해석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주변국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새로운 역사관과 세계관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주변국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상호존중이 가능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역사관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아시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를 위하고 또 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2) 모든 프로젝트들이 두 가지 통일을 위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극복하는데 사용할 유용한 이론(tool)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에 '변경이론연구'를 집어넣고 있으며, 나아가 반반세기 동안 변경학(變遷學)이라는 학문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한번 개발된 변경이론연구는 다음 프로젝트에 응용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다시 더 깊은 변경이론 연구가 들어간다. 끊임없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특징은 단순한 변경이론이 아니라 '중국 변경 이론' 연구라는 점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나는 '중국변경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변경이론'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위주의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보편타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중화인민공화국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이다.

3.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가 제시되면 그에 대한 찬반논리가 오래 진행되고, 그 결과 그 논리가 일반화되고 합의들 이루어졌을 때 실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논리나 목표가 결정되면 연구와 실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논의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 논의 과정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나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내는 순수 학술적 입장은 배제된다. 그것이 다른 나라와 관련되었을 때는 그 강도가 훨씬 심하다.

4.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사회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하·상·주 단대공정은 9차 경제·사회5개년계획(1996~2000), 중화인민공화국 고대문명 탐원 공정(2001~2005년), 하는 식으로 국가의 커다란 계획과 맞물려가기 때문에 조직과 자금이 탄탄하고, 국가적 행정적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는 학문 연구가 국가의 운영과 연관되는 중화인민공화국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 학문의 중립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5. 모든 프로젝트가 적어도 5년, 길게는 수 십년의 장기적인 일정을 가지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중간에 계획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다는 것은 자금과 인력의 적절한 안배와 확실한 목표와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